

□ 정부시책 □

산업자원부, 산업경쟁력조사사업 본격 추진

산업자원부는 WTO 체제하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정밀 평가하여 산업 및 통상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무역조사실 주관하에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는 동 사업은 국내외 문헌조사,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제품비교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주소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동 조사결과는 산업 및 통상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품목에 대한 세계 시장동향, 기술동향,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간의 가격·비가격 경쟁력

비교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세계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국산과 외산간의 경쟁력 비교분석을 위해 소비자 인지도등 설문조사, 그리고 국산제품과 외산제품간의 성능·디자인 등에 대한 제품비교평가도 추진될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을 바탕으로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통상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대통령이나 회의의 요구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 및 무역시책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포지션을 정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시행되어 왔다.

산업자원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능 강화

산업자원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

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허사업협의회를 구성,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은 1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중점 추진할 산업정책방향과 주요현안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장관은 이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술가치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가치에 대해 단순평가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기술평가인력 양성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기술이 사업화되는 비중이 현재 31%에 불과하는 등 저조함에 따라 이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민간벤처캐피탈 및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 기술성 및 사업성을 검토해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산자부·중기청 등에 자금지원을 추천키로 했다.

아울러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된 신기술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장관은 이날 산업구조의 개편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금융감독과 공정거래 체제하에서 대기업을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전문화 하고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3각의 균형을 이루는 안정된 산업조직 형성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 산업의 역동성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특화업종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전문화하도록 유도하고 전문영역에 대한 투자재원은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 또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조달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잡다기한 지원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실질적인 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코스닥 시장을 발전시켜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장관은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올해 하반기중 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며 부품·중간재개발에 대해 수출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 수입을 유발하는 무역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